

김익수 · 양 현
전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물과학부

잉어과의 모래무지아과에 해당하는 한반도 고유종인 돌마자 *Microphysogobio yaluensis*의 지리적 변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임진강, 한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인천강, 영산강, 탐진강, 섬진강 및 낙동강의 10개 지점에서 표본을 조사하였다. 이 중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단에 있어 임진강·한강·금강 집단은 측선비늘수가 38-41(평균 38.8)개, 척추골수가 36-39(37.8)개이고, 만경강·동진강 집단은 측선비늘수가 36-38(37.1)개, 척추골수가 35-37(36.2)개이며, 인천강·영산강·탐진강 집단은 측선비늘수가 35-38(36.6)개, 척추골수가 34-36(35.5)개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측선비늘수와 척추골수의 연속적인 감소의 지리적 cline 현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낙동강·섬진강의 돌마자 집단의 측선비늘수는 37-40(38.5)개, 척추골수는 37-39(37.4)개로서 한강 집단과 유사하면서도 영산강·탐진강 집단과는 구별되고 있어서 영산강·탐진강의 돌마자 집단이 생물지리적으로 주목되었다. 한편 한국 고유종인 *Microphysogobio tungtingensis uchidai*의 type specimens (Holotype: USNM 16227, Paratype: USNM 20409)과 원기재를 확인한 바 윗입술에 뚜렷한 유두돌기 10-12개를 가지고 있으며 아랫입술에 쌍으로 된 심장형의 mental pad가 뚜렷하고 측선상부비늘수가 4개인 점에서 *M. yaluensis*와 잘 일치하고 있어 *M. tungtingensis uchidai*는 *M. yaluensis*의 synonym임을 확인하였다.

S-10 한반도産 포충나방亞科(나비目, 명나방科)의 4未記錄種에 대하여

李竣碩 · 朴奎禱
江原大學校 農業生命科學大學 農生物學科

포충나방아과(Crambinae)는 명나방과(Pyralidae)에 속하는 亞科로서 1810년에 Latreilla가 처음으로 재정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포충나방亞科의 기록은 1889년 Leech가 3종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주로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 본 亞科는 구북구지역(Palaeartic region)에 약 40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는 100여종 그리고 일본에는 90여종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박(1991)이 기재한 1신종을 포함하여 31종이 알려져 있다.

그동안 채집된 표본과 국내의 주요 관련연구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표본을 중심으로 외부형태적인 특징과 암수생식기의 차이를 분석하고 비교, 검토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4未記錄種이 확인되었기에 이에 보고한다.

4未記錄種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Glaucocharis rosanoides Bleszynsky 검은애기포충나방(新稱)
Microchilo inexpectellus Bleszynsky 작은줄포충나방(新稱)
Chilo christophi Bleszynsky 가로줄포충나방(新稱)
Chilo hyrax Bleszynsky 대각줄포충나방(新稱)